

일본 고분자학회를 다녀와서

1998년 일본 고분자학회의 가을 정기 학회인 47th Symposium on Macromolecules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일본 Nagoya의 Nagoya Congress Center에서 열렸다. 한·일 양국의 고분자학회 사이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Young Scientist Exchange Program에 의해 올해는 학회 본부를 대표하여 성균관대학교 정동준교수, 부산·경남 지부를 대표하여 부경대학교의 이봉교수, 그리고 호남 지부를 대표하여 본인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을 학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토론회로 명명되어 각 구두 발표 당 15분간 발표에 10분간의 질문 시간이 배당되었다. 이번 일본 고분자 토론회에는 약 2,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 논문의 수는 포스터를 포함하여 작년보다 100여 편 더 많은 총 1,200여 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열린 추계 고분자학회에는 약 1,200명 참석하여 860명이 등록하였고 58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 논문 숫자는 작년의 추계 학회와 비교하면 약 200여 편 증가된 것인데 그래도 이번에 일본 고분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숫자와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양국의 고분자 관련 연구인력의 수를 비교하면 정확치는 않으나 우리 나라의 연구 실적의 양적 증가가 괄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고분자 연구 분야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번에 고분자 토론회에 참가해서 발견한 토론회 운영상 특징은 일본의 경우에 포스터 발표와 구두 발표를 거의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터도 매 2시간마다 새로운 포스터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게 포스터 발표가 동시에 열리고 또한 자주 바뀌는 것은 구두 발표는 토론 형식이라 1시간에 각 회장에서 2편 정도 밖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논문을 포스터 발표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방식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 발표장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고 포스터 발표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포스터 발표장에 참석할 경우에 구두 발표장으로 가서 발표를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구두 발표가 간혹 10명 이내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논문 발표 분야가 총 27개였으며, 초록을 분야별로 8권의 각기 다른 초록집(총 3,200페이지 분량)과 1권의 영문본 초록집으로 나누어서 싣고 있었다. 가장 많은 구두 발표 분야를 보면 초분자체와 고분자 alloy였고, 그 다음은 고분자 물성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표된 분야는 bioactive 고분자, photonics와 electro-, magneto-, photo-active 고분자 등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느낀 것들 중 한 가지 부러운 점은 이번 학회가 열린 나고야 국제 회의장이다.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국제 회의장이라 학회 운영에 전혀 무리가 없었고 시설이 아주 좋았다(단, 모든 물가가 너무 비쌌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의장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우리나라였다.

본인은 Young Scientists 교류를 위한 정찬이 끝난 후 가진 고분자학회 임원진과 한국에서 간 우리들과의 오묘한 시간에 마침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인 Seiichi Nakahama 교수와 1시간 가량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들은 이야기 중 기억나는 것은 일본의 화학·고분자 분야의 인기가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과, 일본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고분자 및 화학 등 자연과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대규모로 기초과학에 연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란 것이다(기초과학 연구소 설립 포함).

즉, 지금은 기초과학의 우위를 미국이 점하고 있으나 일본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젊은 과학자들을 국적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대거 모집하여 이제 일본이 새로운 세기에 세계의 기초과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곧 가능할 것이란 자신감을 Nakahama 회장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개인적으로 일본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일 중에 여러 가지로 세심한 배려를 해 준 일본 고분자학회의 K. Shida씨와 H. Oh-Hashi씨께 감사 드리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준섭〉